

내시경적 절제술로 진단된 조기대장암의 분석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소화기 연구소
김봉룡*, 권광안, 장근영, 장재영, 정민섭, 유창범, 홍수진
조주영, 김진오, 이준성, 이문성, 심찬섭

대장 용종의 양-악성 유무를 내시경적 육안 소견만으로 감별하여 용종의 내시경 절제술 시행여부를 100%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연자들은 내시경적 절제술후 조기대장암으로 진단된 군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조기대장암군과 선암을 동반하지 않은 군 사이의 용종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용종의 내시경적 절제후 조직 검사에서 조기대장암으로 확진된 환자 22명을 대상으로 용종의 크기, 모양, 개수, 분화도를 분석하고, 동일 기간 동안에 내시경적 용종제거술을 시행받았으나 선암을 동반하지 않은 용종환자 478명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1) 조기대장암군은 용종의 평균개수가 9.4개였으며 용종 환자군에서는 3개였다.
- 2) 조기대장암군에서 총 용종 210예중 크기는 1-5mm 72%, 6-10mm 7%, 11-20mm 10%, >20mm 6%이었다. 암성 변화를 일으킨 용종은 41예로 크기는 1-5mm 51%, 6-10mm 17%, 11-20mm가 19%, >20mm이상이 29%였고 형태는 Is형 56%, Lsp형 24%, Ip형 9%, LST 7%, Ila 3%였으며 분포는 우측대장이 30%, 좌측대장이 70%였다.
- 3) 선암을 동반하지 않은 용종환자군에서 총 용종 1436예중 크기는 1-5mm 90%, 6-10mm 4%, 11-20mm 3%이었으며 선종성 용종이 36%였고 1cm 미만의 선종중 고도 이형성증을 보인 경우는 전체용종의 8%이었다. 결론적으로 내시경적 절제술로 확진된 조기대장암군의 악성용종중 68%가 1cm 이하의 작은 용종이었고 선암을 동반하지 않은 용종절제군에서도 전암병변이라고 할 수 있는 고도 이형성증 용종이 1cm이하의 크기가 8%로 1cm미만 크기의 용종이라하더라도 적극적인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전 서부 및 인근 충남지역에서 집단발생한 급성 A형 간염의 임상양상 건양의대 내과 이태희*, 임의혁, 허규찬, 최용우, 강영우

(목적) 현증 A형 간염은 3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 A형 간염 항체보유율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대전에서는 1996년 7월 서부 지역에 집단 발생이 보고되었으며 1998년 상반기에 전국적인 발생의 조짐이 있었고 2002년 초부터 다시 집단 발생을 보여 그 양상을 조사하였다. (방법) 2002년 6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급성 간염으로 입원하여 Anti-HAV IgM 양성으로 진단된 43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조사하고 설문지 및 전화로 부족한 점을 보충하였다. (성적) 1) 대상환자 43례중 남자 20례, 여자 23례였고 평균연령은 27세였다. 연령대는 20대가 20례(46.5%), 30대가 10례(23.3%), 10대 9례(20.9%) 등이었다. 2) 대부분(40례, 93%)은 2002년 2월에서 8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고, 6월 발생이 8례(18.6%)로 가장 많았으며 5월 발생 7례, 3월, 4월 발생이 각각 6례, 7월, 8월 각각 5례였다. 3) 27례(62.8%)가 서부(서구: 24례, 유성구: 3례)에서 발생하였고 논산시 9례(20.9%), 부여군 3례, 공주시 2례 등이었다. 4) 식수로써는 다수(29례, 67.4%)에서 상수도 물이었고, 생수 10례(23.3%), 약수 및 지하수가 4례였다. 12례(27.9%)에서 입원 2주전에 어패류나 회 등을 섭취한 적이 있었고, 12례에서는 여행력이 있었고, 가족간 감염이 3쌍(6례, 13.9% ; 1쌍 모녀, 2쌍 부부), 친구가 앓았던 경우도 3례가 있었다. 5) 평균 전구증상의 기간은 11.3일, 흔한 증상으로는 피로감(90.7%), 황달(90.7%), 식욕부진(88.4%), 발열(76.7%), 구토(72.1%), 오심(53.5%), 두통(48.8%), 오한(46.5%), 우상복부 동통(37.2%), 설사(37.2%), 소양감(9.3%) 순이었다. 6) 평균 최고 AST/ALT는 1470(최고 5970)/1956(5060) IU/L, 평균 최고 Total bilirubin은 7.04(최고 21.05) mg/dL 였고 2례에서는 만성 B형 간염과 합병되어 있었고 1례에서는 C형 간염이 동반되어 있었다. 7) 초음파상(42례) 17례(40.5%)에서는 지방간이 있었고, 정상 소견 12례(28.6%), 급성 간염소견 11례(26.2%) 등이 관찰되었다. 간 주사소견상(19례) 10례에서 정상(52.6%), 경한 간기능 이상 7례(36.8%) 등이 관찰되었다. 8) 평균 입원기간은 13.4일 이었고 사망 례는 없었고 모두 회복하여 퇴원하였다. 예방접종은 전례에서 모르거나 시행되지 않았다.

(결론) 2002년 상반기에 대전 서부 및 인근 충남지역에서 집단 발생한 A형 간염은 10대 후반과 20-30대에서 주로 발생되었고 감염전 생활상이 다양하여 정확한 감염원은 파악하기 어려웠나 전례에서 합병증없이 대증요법으로 완치되었다. 향후 연령별 예방접종의 일괄적 실시와 위험군 설정 등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